

‘빅데이터 활용’ 완도군, 관광객 1000만 시대 도약

통신·카드사 등 빅데이터 분석 체류형 관광객 기반 시설 투자

지난해 말 완도군을 찾은 관광객이 568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통신사·카드사·SNS 등 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해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KT, 고려대 디지털혁신연구센터 등 관산학 협력으로 행정 디지털 전환에 맞춰 ‘빅 데이터 기반 관광 분석 사업’을 시행했다.

빅 데이터 분석 결과 2022년 말 기준 완도군을 방문한 관광객(외지인과 외국

인 포함)은 568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고 5월과 9·10월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2022년 관광객 증가 이유는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군에서 추진해 온 해양치유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완도수목원 등 관광지, 접근성 개선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관광객 비중은 MZ 세대가 집점 증가하고 관광 소비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도했다.

관광 소비 규모는 전년 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음료, 쇼핑 소매가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고 숙박과 레저, 대중교통 부문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 소비자 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완도군 인근 도시인 목포시와 광주에서 당일 여행 관광객이 많았으며 수도권 관광객의 방문 비중은 해마다 증가했다.

군은 경기도 등 대도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나설 계획이다.

축제의 경우 장보고수산물축제는 40·50대 중장년층 소비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수도권 등 원거리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MZ 세대를 위한 숙박시설 구축,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확대, SNS 관광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제주도가 가장 가까운 항구, 완도항’과 같은 브랜드를 강화할 방침이다.

빅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복지, 주택, 교육, 일자리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과학적·객관적인 방법으로 완도 관광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방향이 나온 만큼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완도=최경철 기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성황 함평군, 1600명 대상

함평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지역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31일 함평군에 따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돕고 영농 신기술 보급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초 실시된다.

올해 실용교육은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대면교육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방점을 두고 식량작목(벼)과 양념채소(고추, 양파, 마늘) 등 2개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10일부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읍·면을 순회하며 오는 28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16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청년 문화복지카드 20만원 지원 영암군, 대상자 한달간 모집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청년들의 문화 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이달 한달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비를 1인당 연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2021년 2월1일부터 도내 주소 를 두고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소가 있는 19세 이상 28세 이하(1995년~2004년 생) 청년이다.

신청기간은 28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 신청 또는 농협 카드 홈페이지의 카드신청 팝업창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 지원팀(061-470-2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이병영 기자

‘대박 로또 이벤트’ 참여하세요 강진군, 매일 30명 추첨

강진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박 로또 이벤트’를 개편해 톤큰 이벤트를 이어간다.

31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매일 30명을 추첨해 1인당 20만원 상당의 상금과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강진청자축제와 4월 예정 전라병영성 축제 기간 한시적으로 매일 당첨자를 추첨할 예정이다.

강진군민을 제외하고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라 하더라도 이벤트 기간동안 재응모와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이벤트 응모를 위한 복잡한 단계를 없애고 한눈에 보고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에 ‘강진군통큰이벤트’ 신규 채널을 개설했다.

채널을 추가해 강진 관광지를 방문한 사진이나 지역에서 소비한 영수증 등을 올려 후기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강진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QR코드를 스캔해 설문도 작성해도 응모된다.

문의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061-434-7992)

강진=김윤복 기자

6개월~4세 코로나 백신 접종 무안군, 13일부터 진행

무안군(군수 김산)은 동절기 재유행과 지속된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현재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정부의 권고에 따라 6개월~4세 영유아에게도 접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과 중증·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생후 6개월부터 만 4세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해 오는 13일부터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안읍 중심으로 지정된 무안군보건소, 남악읍 중심으로 지정된 위탁의료기관 목포의원, 남악아동병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접종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8주(56일) 간격으로 3회 실시한다.

예방접종 예약 및 상담은 무안군보건소 예방접종콜센터(061-450-4686, 4688, 5118, 5119) 또는 위탁의료기관 목포의원(061-285-9524), 남악아동병원(0507-1387-8000)으로 연락하면 된다.

무안=김행연 기자

버스 환승할인제 본격 시행 무안군, 결제수단 변경도

무안군(군수 김산)은 1일부터 무안군 버스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초·중·고 100원 버스 요금제 결제수단을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시범 운행한 환승시스템은 안전성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점검을 마쳐 무안군 농어촌버스·좌석버스, 공공형버스(50번·55번) 전 노선은 환승이 가능하게 됐다.

환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단말기 태그 1시간 이내 환승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환승이 가능하며 동일 노선으로의 환승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향후 목포시내버스 정상 운행 시에는 목포시내버스와의 광역환승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8월11일부터 시행됐던 초·중·고 100원 버스요금 혜택은 교통카드와 현금모두 이용 가능했으나 1일부터는 교통카드 사용 시에만 100원 버스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군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중교통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연 기자



영암군, 군민 대상 우물선별검사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울증 조기발견과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해 만 10세 이상 군민을 상대로 연중 우물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

‘시내버스 운행 중단’ 목포시, 비상수송차량 증차·증회

평일 12대 늘려 75대 운행 중·고생 통학 노선 신설 등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지속됨에 따라 비상수송차량 운행 전세버스의 운행횟수를 늘리고 노선을 확대·운영한다.

목포시는 태원·유진 시내버스회사의 가스비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중단으로 운행하고 있는 비상수송차량을 1일부터 12대 증차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상수송차량은 현재 11개 노선(1번·

1A번·2번·6번·9번·11번·13번·15번·20번·33번·60번) 63대를 운행 중이며 증차에 따라 75대를 운행하게 된다.

운행 횟수도 증회된다. 이용객이 많은 주요 5개 노선(1번·1A번·9번·20번·60번)은 배차간격을 단축해 증회 운행하며 정류장 정차 정시성 준수를 위해 운행시간표를 개선한다.

2-1번 노선은 신설된다. 학생 등하교 이동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옥암·부주·향도여중·영흥중·정명여중·목포여중을 경유하게 된다.

용해지구·동부시장·고하도를 운행하고 있는 33번 노선은 연장된다. 용해지구에서 신항만~현대삼호아파트까지 운행돼 신항만과 현대삼호아파트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 수요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수송버스에 대한 자세한 운행시간표는 시 홈페이지, SNS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목포시는 교통편의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완도군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산림청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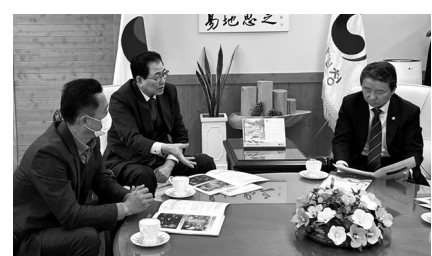
신우철 군수, 남성현 청장 면담

완도군에 들어설 국립난대수목원을 조기에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달 30일 산림청을 방문해 국립난대수목원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신 군수는 남성현 산림청장과 면담을 통해 “어려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립난대수목원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립난대수목원이 해양치유산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에게 국립난대수목원 개원이라는 선물을 안겨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신 군수는 “수목원 개원 시기에 맞춰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케이블카 등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양관광도로 등 접근성 개선에 힘쓰겠다”며 “수목원 조성 과정에 수반되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국립난대수목원이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며 “수목원이 갖춰야 할 수집, 전시, 교육, 보전, 연구기능과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1475억원(국비)을 투입해 381ha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 온실, 모노레일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완도=최경철 기자